

민간공원조성 일몰제 해법 찾아

익산시, 내년 대비 장기미집행 공원 민간조성사업 녹지 확보... 시 재정부담 덜어

익산시(시장 정현율)가 2020년 7월 부터 시행되는 '일몰제'에 대비해 소라공원을 비롯한 주요 도시공원 7곳을 민간공원조성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익산시의 경우 일몰제가 적용될 경우 해제되는 도시공원은 19곳, 330만㎡이고 이에 대한 토지매입비만 3,700억 원에 달해 이를 일몰 전 해결하지 못할 경우 난개발 및 생활환경 파괴로 인한 심각한 문제점이 예상되지만

시 재정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만㎡ 이상의 도시공원에 대해 민간사업자가 대상 부지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이하에 대해서는 비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민간공원조성 특별제도를 활용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소라공원은 LH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구계획승인절차를 거쳐 올해 연말부터 토지보상 및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단계로 마동, 모인, 수도산, 팔봉공원에 대한 민간공원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행정절차를 거쳐 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후 올해 연말부터 토지매입 절차에 들어간다.

사업은 그동안 공원으로 묶여 장기

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던 문제점을 해결하고 시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다.

또한 공동주택 공급으로 분양가 안정 및 주변지역 인구 유입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일몰제 시행이 1년여 남은 시점에서 민간공원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돼 시민들에게 도시환경과 소중한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익산=장인천 기자



원광대학교 ICT융합 그린에너지연구원은 테그린에너지 분야 취업 등을 위한 견학프로그램 일환으로 부안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를 다녀왔다.

원광대 연구원, 신재생 에너지 연구단지 견학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 ICT융합 그린에너지연구원은 그린에너지 분야 취업 및 진로 탐색을 위한 견학프로그램으로 최근 부안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를 다녀왔다.

4학년 안효은 학생은 "에너지 산업의 폭넓은 영역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았고, 전북도가 그린에너지 산업의 메카임을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참여 소감을 전했다.

그린에너지연구원 정찬권 교수는 "학생들이 이번 견학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취업과 진로를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며, "에너지 연구 동향을 발표하고, 태양열, 태양광발전, 바이오매스, 풍력, 수수력, 지열, 해양에너지, 폐기물 에너지 등 8개 분야의 재생에너지와 연료전지, 석탄액화가

스화, 수소에너지 등 3개 분야의 신에너지를 포함해 총 11가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해 설명했다.

이력개발처 지원을 받아 대학원 및 학부생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견학은 전라북도 신재생에너지 실증연구단지 현장을 방문하고, 다양한 에너지 분야 산업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에너지 분야 소개는 신재생에너지소재개발지원센터 이경무 팀장이 태양광 모듈에 관한 연구 동향을 발표하고, 태양열, 태양광발전, 바이오매스, 풍력, 수수력, 지열, 해양에너지, 폐기물 에너지 등 8개 분야의 재생에너지와 연료전지, 석탄액화가

/익산=장인천 기자

군산시, 정부 생활SOC 3개년 공모사업 대응 논의

군산시가 정부 생활SOC 3개년 공모사업 확보를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웠다.

시에 따르면 최근 국무조정실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명회에

서 정부는 연내 생활SOC 사업 공모를 통해 지자체가 희망하는 사업들에 대해 종합검토를 거쳐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지난 26일 군산시청 상황실에서 생활SOC추진단 실무회의를 개최하

고 추진 담당부서 계장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3개년 계획 공유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실무회의에서는 정부에서 발표한 144개의 생활SOC 시설에 대해 5월 중 부서별 수요조사를 면밀히 실시하

도록 추진 방향을 설정했다. 특히 다른 공공시설 사업과 연계 또는 국·공유지 활용 복합화 대상사업발굴과 시설 신속 시 소요되는 운영비 등 비용 예산에 대한 실무적 논의도 이루어졌다.

한편, 정부 생활SOC 복합화 시설 주요사업으로 ▲공공도서관 ▲국민체육센터 등이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종합대책

군산시가 최근 기상이변 등으로 발생하고 있는 호우, 폭염, 가뭄 등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 26일 이승복 부시장 주재로 열린 종합대책 보고회에서는 재난협업 관련부서장 24명이 참석했다.

가운데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한 다양하고 참신한 대응방안을 논의 했다.

특히 시 안전총괄과에서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롤링포그, 그린터널, 롤타올 배부 등을 시행했다.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이 청량한 여름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부서별로 재난별 대응계획을 사전점검과 협업부서별 정보 공유로 발견된 위험요소 중 즉시 조치했다.

가능한 사항은 현장조치 하고, 추가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승복 부시장은 "각 부서별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철저한 사전 대비와 준비를 통한 신속한 대응을 한다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업체 선정

익산시(시장 정현율)는 최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심사 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적격업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평가항목은 기술능력평가(정성평가(60점), 정량평가(20점)), 가격평가(20점)로 정성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정량·가격평가는 입찰참가업체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평가가 진행됐다.

그 결과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가 각각의 분야에서 1순위 협상적격업체로 선정됐다. 1순위 협상적격업체는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

반(유)합동산업, ▲재활용품·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유)행복나눔미, ▲음식물류수거, 종량제봉투 보급, 압축폐기물 해체·운반(유)제이산업으로 선정됐다.

협상적격업체들은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휴게시설 및 샤워실 확충, 모뎀 환경미화원에 대한 지원 확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청소차량 안전발판 및 영상정보 장치 설치, 배기관 방향 전환 등을 제시했으며 청소차 GPS 장치 설치·운영,

GIS(지리정보시스템)를 활용한 생활쓰레기 수거노선의 최적화 방안 등 그동안 관행적으로 진행됐던 업무추진 방식을 개선하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시 관계자는 "선정된 1순위 업체와 과업내용 및 제안서 내용을 토대로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며 이번 계약으로 예산절감효과와 함께 환경미화원의 복지를 증진하고 쓰레기 수거체계를 개선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청소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익산=장인천 기자

익산시 '농촌·도시 빈집정비사업' 본격 추진

익산시가 화재, 해충서식 및 청소년 탈선장소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농촌 및 도시의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농촌과 도시의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공익상 유해한 건축물의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농촌과 도시 지역 빈집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빈집정비 대상은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

이다. 슬레이트 지붕은 동당 300만원, 지붕은 동당 150만원까지 빈집정비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익산시가 총 114동으로 해당 빈집 정비를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시, 주말 체육행사 성황리 마무리

주말동안 익산에서 아마 바둑의 최강자를 가리는 바둑왕중왕전 등 다채로운 체육대회가 개최됐다.

익산시중배 바둑왕중왕전은 익산시 바둑협회(회장 최성업) 주관으로 지난 27일부터 이틀 동안 청소년수련관

에서 400여명의 바둑 고수들이 모여 아마 최강부와 일반부, 여성부, 중고등부, 초등부 등 5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각 경기는 조별 예선 리그를 거쳐 본선 토너먼트 방식으로 승부를 겨뤘으며 바둑을 사랑하는 전국

의 아마 바둑 동호인들이 참여해 명승부를 펼쳤다. "제48회 전국소년체전 및 제13회 전국장애학생체전 성공개최를 위해 준비했고 다양한 체육행사를 통해 경제유발 효과를 창출해 시민경제의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드림스타트 가족 문화체험 행사가 성황리에 열렸다.

군산시드림스타트, 가족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군산시드림스타트 사업대상 18가정(미취학 아동 22명, 부모 18명)과 함께 가족 문화체험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문화체험은 대전광역시 어린이회관과 아쿠아리움에서 상상놀이터, 리틀레프 요리교실, 어린이 뮤지컬 관람의 시간을 가졌다.

시는 하반기에도 드림스타트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올바른 인성 함

양을 위한 '인성 예절교육 캠프'를 운영할 방침이다. 또 부모와의 소통 및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부자 캠프' 및 '가족 여행'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황대성 아동청소년과장은 "가족간 소통을 통해 대상 아동이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의 기회제공을 위해 프로그램 개발과 예산 지원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산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평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 **NK프로젝트 N·1**

• nF1 + 카제이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